

## 진서[晉書] 동이열전(東夷列傳)

### 1. 부여국(夫餘國)

1) 부여국은 현도(玄菟)의 북쪽 천여리에 있는데, 남쪽은 선비(鮮卑)와 접해 있고, 북쪽에는 약수(弱水)가 있다. 국토의 면적은 사방 2천리이고, 호수는 8만이다. 성읍과 궁실(宮室)이 있으며, 토질은 오탁이 자라기에 적당하다. 그 나라 사람들은 군세고 용감하며, 회동(會同)하거나 읍양(揖讓)하는 예의에 있어서는 중국과 비슷하다. 외국에 사신으로 갈 때에는 비단이나 모직물로 만든 옷을 입고, 금이나 은으로 만든 장신구로 허리를 장식한다. 그 나라의 법률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을 몰수하며, 도둑질을 한 사람은 [도둑질한 물건] 12배를 갚도록 하고, 남녀(男女)가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질투하면 모두 사형에 처하였다. 혹 전쟁이 있게 되면 소를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 발굽으로 길흉을 점치는데, 발굽이 갈라지면 흉하고 합해지면 길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죽으면 산 사람으로 순장을 하며, 관(槨)은 있으나 관은 없다. 상(喪)을 치르는 동안은 남녀가 모두 흰 옷을 입는데, 부인은 베로 만든 면의(面衣)를 착용하며 옥(玉)으로 만든 패물은 차지 않는다. [그 나라에서는] 좋은 말과 담비(貂)·삼괘이(貂)와 좋은 구슬이 산출되는데, 그 구슬의 크기는 대추만 하다. 그 나라는 매우 부강하여 선대(先代)로부터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한 일이 없다. 그 왕의 인장에는 「예왕지인(穢王之印)」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나라 가운데에 옛 예성(穢城)이 있으니, 그것은 본래 예맥(穢貊)의 성이다.

2) [서진(西晉)]의 무제 때에는 자주 와서 조공을 바쳤는데, 태강(太康) 6년(A.D.285; 高句麗 西川王 16)에 이르러 모용외(慕容廆)의 습격을 받아 패하여 [부여]왕 의려(依慮)는 자살하고, 그의 자제들은 옥저로 달아나 목숨을 보전하였다. 무제는 그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부여왕이 대대로 충성과 효도를 지키다가 몹쓸 오랑캐에게 멸망되었음을 매우 가엾게 생각하노라. 만약 그의 유족으로서 복국(復國)할만한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방책을 강구하여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게 하라.” 이에 유사(有司)가 보고하기를, “호동이교위(護東夷校尉)인 선우영(鮮于嬰)이 부여를 구원하지 않아서 기민하게 대응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고 하였다. [무제는] 조서를 내려 [선우]영을 파면시키고 하감(何龕)으로 교체하였다.

3) 이듬 해에 부여후왕(夫餘後王) 의라(依羅)는 하감에게 사자를 파견하여, 현재 남은 무리를 이끌고 돌아가서 다시 옛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며 원조를 요청하였다. [하]감은 전열(戰列)을 정비하고 독우(督郵) 매침(買沈)을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부여의 사자를] 호송하게 하였다. [모용]외 또한 그들을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가]침이 [모용]외와 싸워 크게 깨뜨리니, [모용]외의 군대는 물러가고 [의]라는 나라를 회복하였다. 그 후에도 [모용]외는 매번 [부여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중국에 팔아 먹었다. 황제는 그것을 가엾게 여기어 다시 조서를 내려 국가의 비용으로 속전(贖錢)을 주고 [그들을 부여로] 되돌려 보내었으며, 사주(司州)와 기주(冀州)에 명하여 부여 사람의 매매를 금지시켰다.

### 2. 마한(馬韓)

1) 한(韓)에는 세 개의 종족이 있으니, 하나는 마한(馬韓), 둘째는 진한(辰韓), 셋째는 변한(弁

韓)이다. 진한은 대방(帶方)(군(郡))의 남쪽에 있는데,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 한계를 삼는다.

2) 마한은 산과 바다 사이에 있는데 성곽이 없다. 모두 56개의 작은 나라가 있는데, 큰 나라는 1만호(萬戶), 작은 나라는 수천호(數千家)로서, 각각 거수(渠帥)가 있다. 마한의 풍습은 기강이 낮아 궤배(跪拜)하는 예(禮)가 없다. 땅을 파서 움집을 만들어 거처하는데, 그 모양은 마치 무덤같으며 출입문은 위쪽으로 나있다. 온 가족이 그 속에 함께 살기 때문에 장유(長幼)와 남녀(男女)의 분별이 없다. 소나 말을 탈 줄 모르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는 것은 단지 장사지내는 데 쓰기 위해서이다. [그 나라의] 풍속에는 금·은·비단·모직물 따위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구슬을 귀중하게 여겨서 옷에 꿰어 차기도 하고 또는 머리를 장식하거나 귀에 달기도 한다. 남자들은 머리를 틀어 묶고 상투를 드러내놓으며, 베로 만든 도포를 입고 짚신을 신는다. [그 사람들의] 성질은 용감하고 굳세다. 국가에 부역이 있거나 성황(城隍)을 수축(修築)할 적에 용감하고 건강한 젊은이는 모두 등가죽을 꿰고 그 구멍에 큰 밧줄을 꿰어, 막대기로 그 줄을 흔들며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면서 힘껏 일하는데, [이를] 아프게 여기지 않는다. [그 나라 사람들이] 활·방패·창·큰 방패를 잘 쓰며, 비록 남과 다투거나 전쟁을 할 때에도 굴복한 상대를 서로 귀하게 여긴다. [마한의] 풍습은 귀신을 믿으므로 해마다 5월에 씨뿌리는 작업을 마친 뒤, 떼지어 노래하고 춤추면서 신(神)에게 제사지낸다. 10월에 이르러 추수를 마친 뒤에도 역시 그렇게 한다. 국읍(國邑)에는 각각 한 사람을 세워 천신(天神)에 대한 제사를 주재하게 하는데, 그를 '천군(天君)'이라 부른다. 또 별읍(別邑)을 설치하여 그 이름을 '소도(蘇塗)'라 하는데,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단다. 소도의 뜻은 서역(西域)의 부도(浮屠)와 흡사하지만 행하는 바의 좋고 나쁜 점은 차이가 있다.

3) [서진(西晉)의] 무제(武帝) 태강(太康) 원년(元年)(A.D.280; 百濟 古爾王 47)과 2년(A.D.281; 百濟 古爾王 48)에 그들의 임금이 자주 사신을 파견하여 토산물을 조공하였고, [태강] 7년(A.D.286; 百濟 責稽王 1)·8년(A.D.287; 百濟 責稽王 2)· 10년(A.D.289; 百濟 責稽王 4)에도 자주 왔다. 태희(太熙) 원년(元年)(A.D.290; 百濟 責稽王 5)에는 동이교위(東夷校尉) 하감(何龕)에게 와서 조공을 바쳤다. 함녕(咸寧) 3년(A.D.277; 百濟 古爾王 44)에 다시 [사절이] 왔으며, 이듬해에 또 내부(內附)하기를 청하였다.

### 3. 진한(辰韓)

1) 진한(辰韓)은 마한(馬韓)의 동쪽에 있다. [진한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진(秦)나라에서 망명한 사람들로서 [진(秦)의] 고역(苦役)을 피하여 한(韓)에 들어왔는데, 한(韓)이 동쪽 지역을 분할하여 그들을 살게 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성책(城柵)을 세웠으며, 언어는 진(秦)나라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혹은 진한(秦韓)이라고도 하였다. 처음에는 6국(國)이 있었으나, 그 뒤 점점 나뉘어 12국(國)이 되었다. 또 변진(弁辰)이 있는데 그 역시 12국으로 도합 4~5만호(萬戶)이며, 각각 거수(渠帥)가 있고 모두 진한(辰韓)에 속해 있다. 진한은 언제나 마한 사람을 임금으로 삼아 비록 대대로 계승하지만 [진한 사람이] 스스로 임금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다. [진한의] 토질은 오곡이 자라기에 적당하며, 양잠이 성행하고 비단을 잘 짜며, 소도 부리고 말도 탄다. 그 풍속은 마한과 비슷하며, 병기도 역시 마한과 같다. 아기가 처음 출생하면 곧 돌로 그 머리를 눌러서 납작하게 한다. 춤추기를 좋아하며 비파 연주를 잘 하는데, 비파의

모양은 축(筑)과 비슷하다.

2) [서진(西晉)] 무제(武帝) 태강(太康) 원년(元年)(A.D.280; 新羅 味鄒王 19)에 [진한]왕이 사신을 보내어 방물(方物)을 바쳤다. [태강(太康)] 2년(A.D.281; 新羅 味鄒王 20)에 다시 와서 조공하였으며, [태강(太康)] 7년(A.D.286; 新羅 儒禮王 3)에도 또 왔다.

#### 4. 숙신씨(肅愼氏)

1) 숙신씨(肅愼氏)는 일명 읍루(挾婁)라고도 하는데, 불함산(不咸山) 북쪽에 있으며, 부여에서 60일 쯤 가야하는 거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연해 있고, 서쪽으로는 구만한국(寇漫汗國)과 접해 있으며, 북쪽은 약수(弱水)에까지 이른다. 그 땅의 경계는 사방 수천리에 뻗어 있다. [사람들은] 심산궁곡(深山窮谷)에 살며, 그 길이 험준하여 수레나 말이 통행하지 못한다. 여름철에는 나무 위에서 살고 겨울철에는 땅굴에서 산다.

2) [그 나라에서는] 부자(父子)가 대대로 [세습하여] 군장(君長)이 된다. 문자(文字)가 없기 때문에 언어(言語)로 약속을 한다. 말이 있어도 타지 않고 단지 재산으로 여길 뿐이다. 소와 양은 없고 돼지를 많이 길러서, 그 고기는 먹고 가죽은 옷을 만들며 털은 짜서 포(布)를 만든다. 낙상(雒常)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중국에 성제(聖帝)가 새로 제위(帝位)에 오르면 그 나무에 껍질이 생겨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다고 한다. 우물이나 부엌이 없으며, 와격(瓦鬲)을 만들어 4~5되의 밥을 담아서 먹는다. 앉을 때는 두 다리를 뺀고 앉으며, 발에 고기를 끼워 놓고 씹어 먹는다. 언 고기를 얻으면 그 위에 올라 앉아서 [체온으로] 녹인다.

3) [그 지방에서는] 소금과 철이 생산되지 않으므로, 나무를 태워 재를 만들고 [물]을 부어 즙(汁)을 받아서 먹는다. 그 사람들은 모두 편발(編髮)을 하고, 포(布)로 지름이 한자 쯤 되는 가리개를 만들어 앞과 뒤를 가리운다. 혼인하러 갈 때에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에 깃털을 꽂아주는데, 여자가 [결혼을] 승락하면 그 깃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음에 예를 갖추어 맞아 온다. 부인(婦人)은 정숙한 반면 처녀는 음란하며, 건강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늙은이는 천하게 여긴다. 죽은 사람은 죽은 그 날에 곧 바로 들에다 장사를 지내는데, 나무를 짜 맞추어 작은 곱(椁)을 만들고 돼지를 잡아서 그 위에 쌓아 놓고는 죽은 사람의 양식이라고 한다. 그들의 성질은 흉악하고 사나우며,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것을 서로 숭상하므로 부모가 죽어도 남자는 곡(哭)하지 않는데, 곡(哭)하는 사람은 씩씩하지 못하다고 한다. 도둑질을 한 사람은 물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죽인다. 그 때문에 비록 들에다 놓아 두어도 훔쳐가지 않는다. [숙신(肅愼)에는] 돌로 만든 살촉(석노, 石柞)과, 가죽과 뼈로 만든 갑옷 과, 석자 다섯치의 단궁(檀弓)과, 한 자(尺) 몇 치(咫)쯤 되는 길이의 고시(楛矢)가 있다. 그 나라의 동북쪽에 있는 산에서 산출되는 돌은 쇠를 자를만큼 날카로운데, [그 돌을] 채취하려면 반드시 먼저 신(神)에게 기도하여야 한다.

4) 주(周) 무왕(武王)때에 그 고시(楛矢)와 석노(石柞)를 바쳤다.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보좌하던 때에는 다시 사신을 보내어 조하(朝賀)하였다. 그 뒤 천여년 동안은 비록 진(秦)나라와 한(漢)나라의 강성한 세력으로도 그들을 오게 하지 못하였다.

5) 문제(文帝)가 [위(魏)의] 정승이 되었을 때인 위(魏)나라 경원(景元)(A.D.260~263; 高句麗 中川王 13~16)말경에 고시(楛矢)· 석노(石弩)· 궁갑(弓甲)· 초피(貂皮) 따위를 가지고 와서 바쳤다. 위제(魏帝)는 [그 물건들을] 승상부(丞相府)에 보내도록 명(命)하고, [숙신(肅愼)의] 왕(王) 녹(儻)에게는 닭· 비단 모직물· 솜을 하사하였다.

6) 무제(武帝)의 원강(元康)(A.D.291~299; 高句麗 西川王 22~烽上王 8) 초에 다시 와서 공물을 바쳤다. [동진(東晉)의] 원제(元帝)가 [진(晉)나라를] 중흥(中興)시키자, 또 강좌(江左)에 와서 그 석노(石弩)를 공물(貢物)로 바쳤다.

7) 성제(成帝) 때에 이르러서는 [후조(後趙)의] 석계룡(石季龍)에게 통호(通好)하여 조공하였는데, 4년만에 비로소 도달하였다. 석계룡이 [사신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언제나 소와 말이 항상 서남쪽으로 향하여 잠자는 것을 3년간 보고서, 대국(大國)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왔습니다.” 하였다 한다.